

공용품이란 무엇일까?



집 안에서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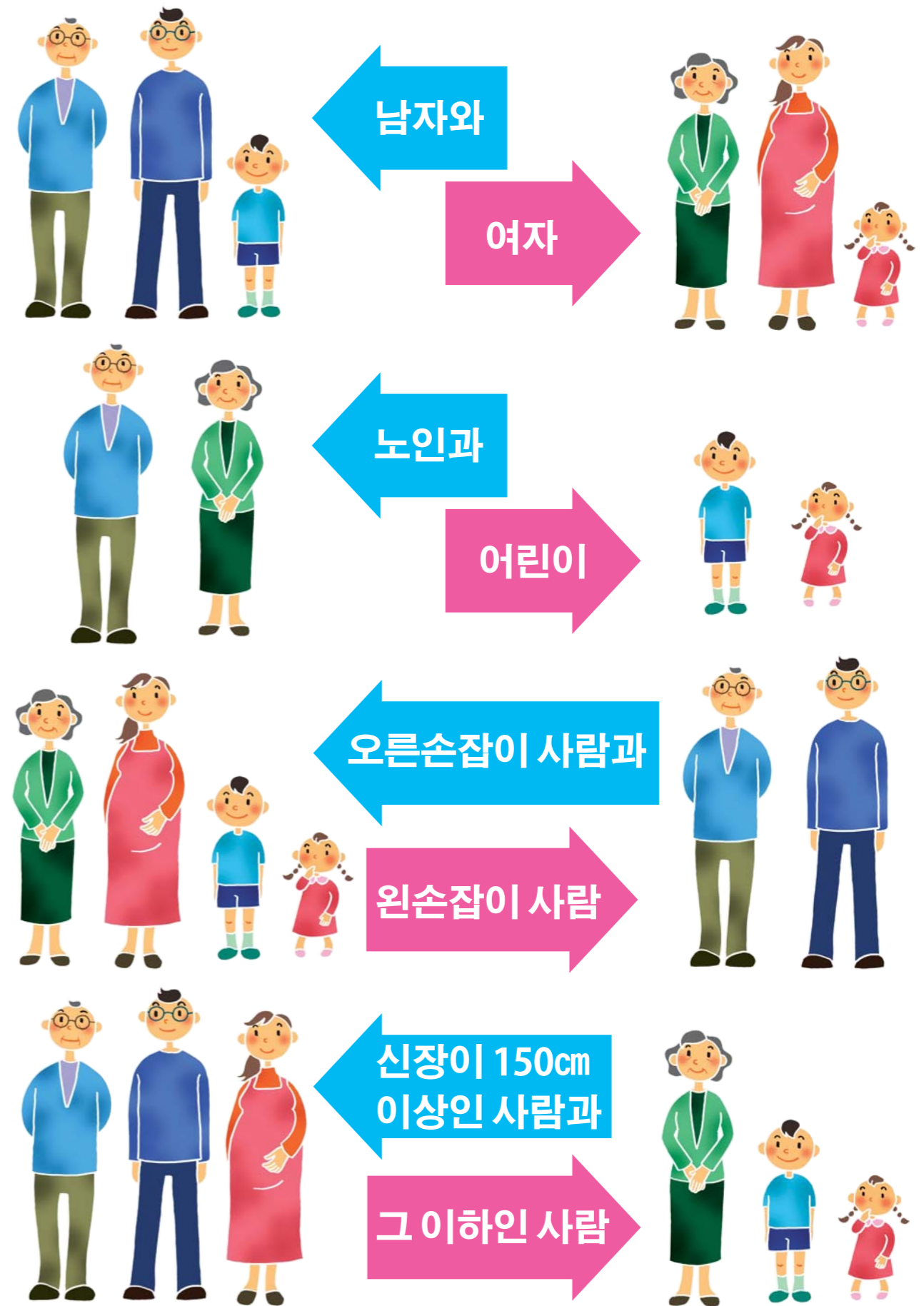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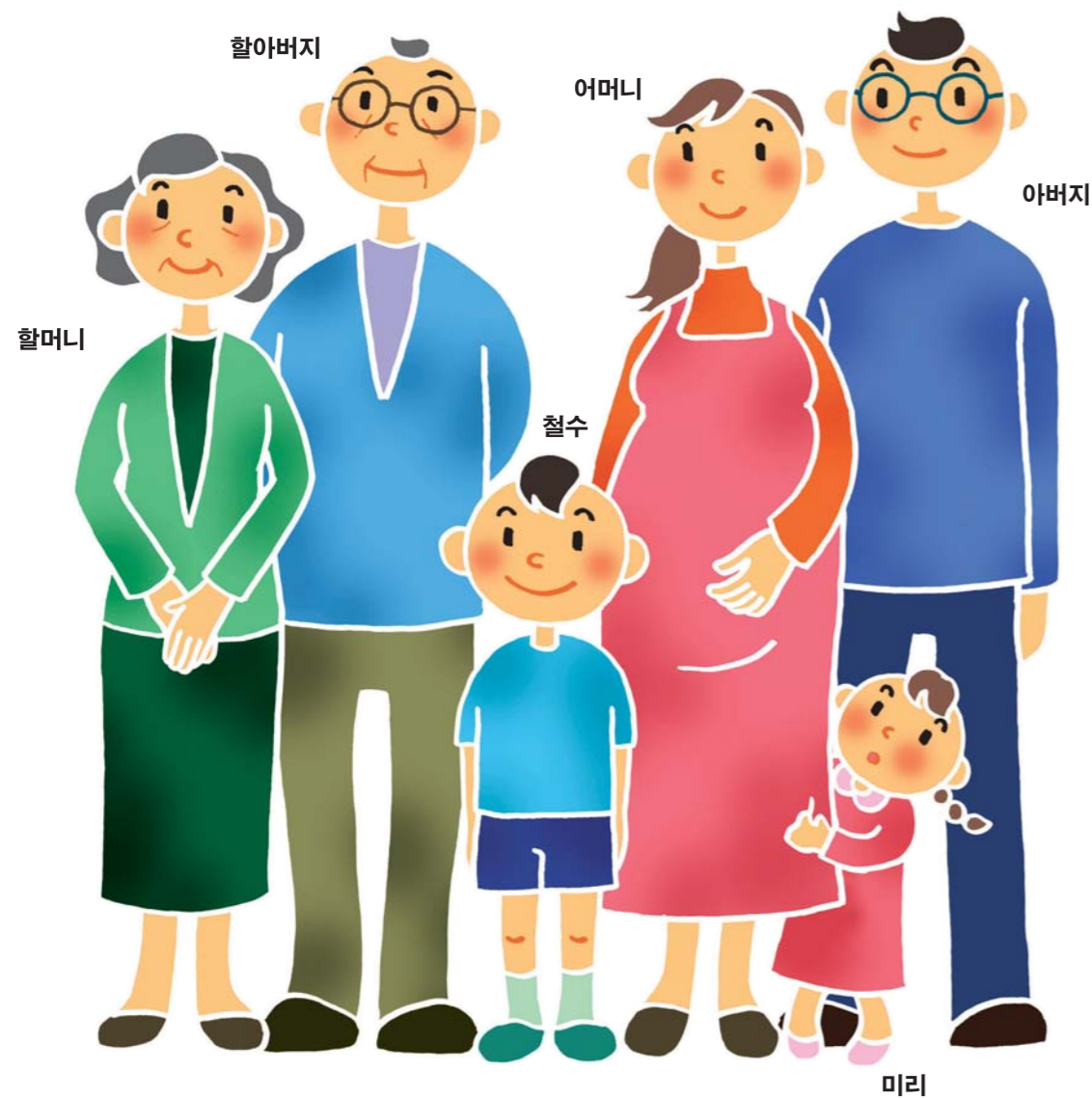
공용품이란 알고있어요?



거리에 나가서 생각해 보아요

가족 중에서도 한사람 한사람 여러가지 차이가 있네요.

철수의 가족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미리의 6인 가족.
어머니의 배 안에는 아기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들 . . .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가지 개성이 있지만
한명도 같은 사람은 없어요.
「공용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이 것에 대해 깨닫고 있는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해요.



선생님 및 가족 여러분

이 책자는 앞뒤 어느쪽부터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쪽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다양각색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반대 쪽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불편함을 아는것을 시작으로 중간에는 공용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켄타 가족은 각각 이러한 것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요.

가족이라도 한사람 한사람 다르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조금 더 궁리를 해 보면 곤란한 것이 적어질지도 몰라요.
모두 함께 사용하거나 즐길 수 있을지 몰라요.

어머니가 곤란을 겪고 있는 것.



아기를 가져 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발밑이 보이지 않아 계단이 무서워요.

켄타랑 마미가 곤란을 겪고 있는 것.



키가 작아서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잡기가 힘들어요.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샴푸와 린스를 바꿔서 써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곤란을 겪고 있는 것.



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캔이나 병의 뚜껑을 잘 못 열어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텔레비전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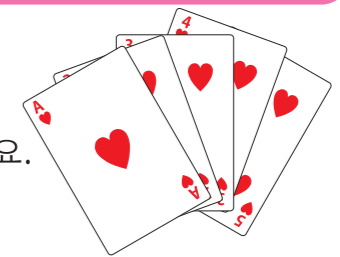
아버지가 곤란을 겪고 있는 것.



왼손잡이라서

함께 트럼프를 칠때 불편해요.

왼손잡이라서 숫자가 사라져요.



선생님 및 가족 여러분

다른 특성을 가진 가족의 각각 겪고 있는 곤란에 대해서 알아 보았어요. 한사람 한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 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갑시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공용품」을 아는 기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곤란에 대해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봐요.

어린이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가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겪고 있는 곤란과 그 것을 없애려는 마음,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여기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품을 일반제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반제품

복지용구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전용으로 만들어진 물품을 복지용구라고 해요.

「공용품」에는 이렇나 궁리가 되어 왔어요.

우리의 주변 여러 곳에서 「공용품」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떠한 궁리가 되어 왔는지 함께 보아요.

힘이 약해진 할머니도 열기 쉬운 궁리
열기 쉬운 캔이나 병 용기 등

손으로 만진 느낌으로 린스와의 차이를 아는 궁리
샴푸 용기의 거친 표면이나 우유 팩의 「절단 부분」



예를 들면 「공용품」의 트럼프라면 모두 함께 놀 수 있어요!



모두가 쓰기 쉽고 즐거운 모두가 함께 생각하면 「공용품」

모두의 마음과 지혜가 모이면 일반제품이나 복지용
그런 식으로 궁리하여 만든 제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더욱 「공용품」이 많

청각 장애인이나 귀가 멀어진 할아버지의 이해를 돕는 궁리

텔레비전 자막방송



청각 장애인도 즐겁고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곳에서도 중요한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궁리

휴대전화의 착신을 알리는 진동이나 메일



읽지도록 하기 위해 이 생기게 되는 것이예요.

공공품을 모두에게 더 편리한 물품으로 만들 수 있네요.
이 물품을 「공공품」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공공품 월드를
크게 만들어가요.**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쏟고 공공품을 크게 키워 가요.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품의 중요함을 알리러 가요.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궁리**

**음성이나 문자·그림 등을 통해
통지나 유도를 위한 안내**



**키가 작은 사람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사용하기 쉽게하는 궁리**

**우체국이나 은행 등에 있는 낮은
필기용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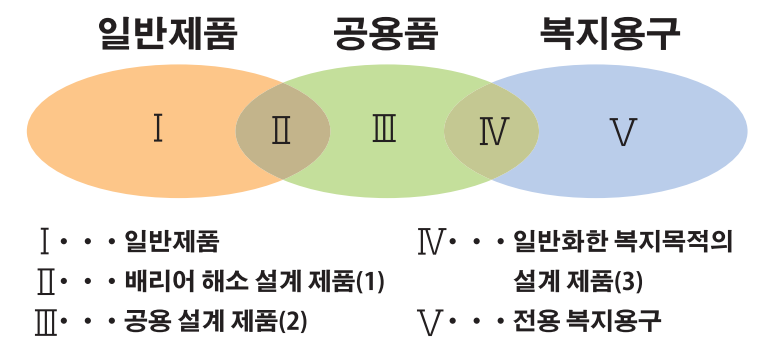
**턱이 무서운 어머니나 휠체어
탄 사람을 위한 배려**

역에 있는 완만한 슬로프

선생님 및 가족 여러분

「신체적인 특성이나 장애에 관계 없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기 쉬운 제품·시설·서비스」가 「공공품·공공 서비스」의 정의이며 다음의 3가지를 포괄하는 개념도 되고 있습니다.

- (1) 일반제품의 이용상의 부적합을 없애는 배리어 해소 설계
- (2)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적합하도록 생각하는 공용설계
- (3) 복지용구를 기초로 일반화한 복지목적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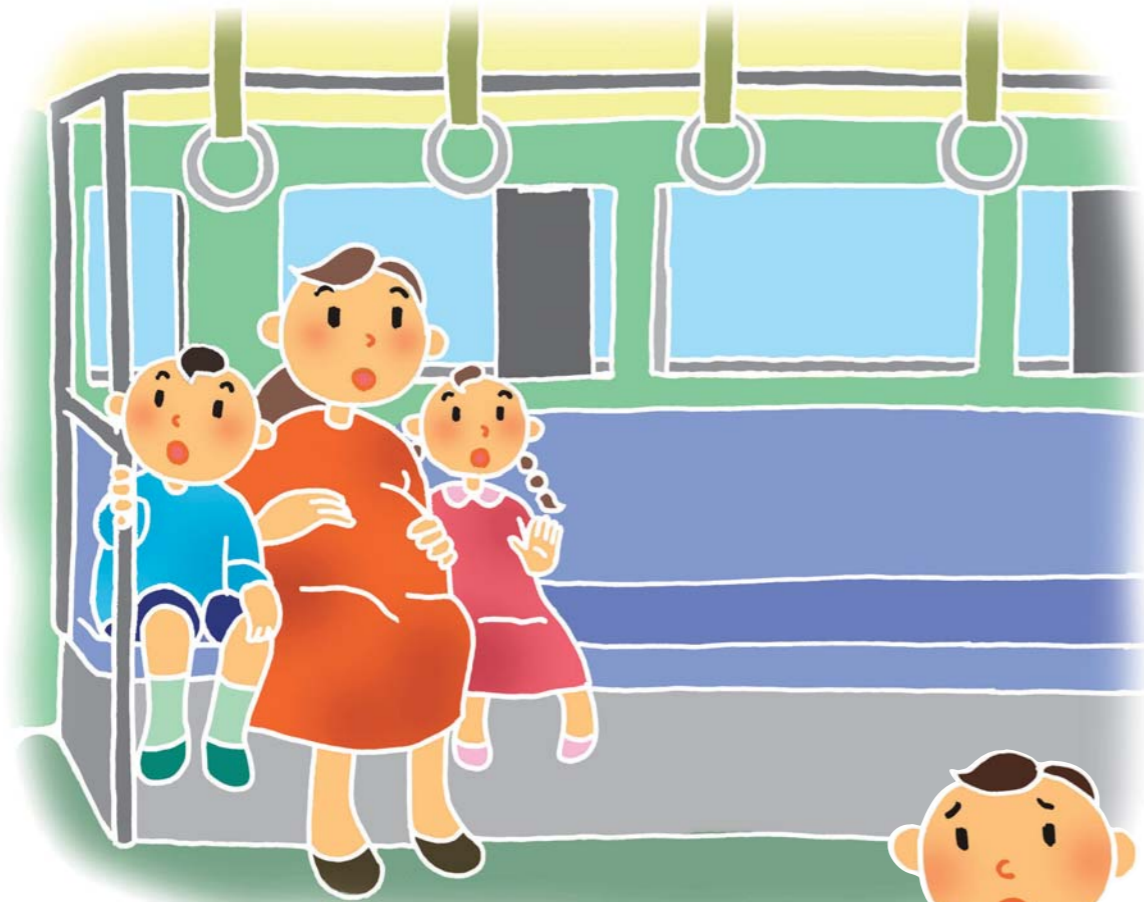
공공품추진기구는 1991년부터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해 온 시민단체 「E&C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산해 그를 토대로 1999년4월에 설립한 공익법인입니다. 공공품·공공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불편함 조사 배려 사항의 검토를 포함한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이 책자발행도 그 활동의 일환입니다.
※ 이 책자는 일본아동교육진흥재단에서의 조성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공익재단법인 공공품추진기구
우편번호 101-0064 도쿄도(東京都) 치요다구(千代田區)
사루가쿠초(猿樂町) 2-5-4 OGA빌딩2F
TEL. 03-5280-0020 FAX. 03-5280-2373
e-mail: jimukyoku@kyoyohi.org
http://kyoyohin.org

많은 사람에게 보기 쉬운 책자만들기를 목적으로 하고 문자의 타입이나 색의 콘트라스트등에 배려해서 제작했습니다.
발행: 재단법인 공공품추진기구
제작: 주식회사 【구릿쿠스(GRIX)】
감수: 케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
교수 나카노(中野) 야스시(泰志)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각각 이러한 것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요.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알기 어렵지만 이렇게도 곤란을 겪는 것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분이 되어 어떻게 하면 곤란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봐요.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모두가 즐거워지는 물품이나 모두에게 편리한 도구, 탈 것이 있으면 좋을 지도 모르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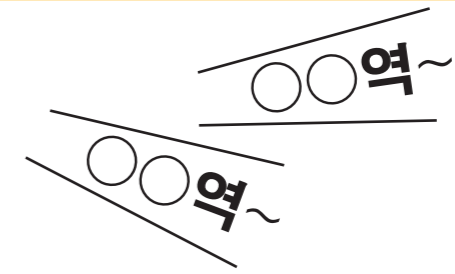
시각 장애인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

-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 가는 길이나 방향을 몰라요.
- 어떤 물건인지 몰라요.
-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청각 장애인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

- 전차나 버스의 안내방송이 들리지 않아요.
- 이름을 불리어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 위험한 상황에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지체 장애인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

- 큰 턱이 있으면 앞으로 가지 못해요.
- 무리한 자세를 취하지 못해요.
- 높은 곳에는 손이 닿지 않아요.

선생님 및 가족 여러분

다른 특성을 가진 가족의 각각 겪고 있는 곤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아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쉬운 「공용품·공용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자신과는 다른 사람에 대해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도해 주세요.

거리에는 여러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수랑 여동생 미리는 어머니와 함께 전철로 쇼핑 중. 그러자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여성을 위해서 모두가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다음 역에서 흰 지팡이를 든 사람이 탔는데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시각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철수랑 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어 있는 자리를 알려 주었어요. 과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까...?



지체 장애인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청각 장애인

귀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거나 손의 움직임으로 이야기(수화)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각 장애인

흰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 및 가족 여러분

이 책자는 앞뒤 어느쪽에서부터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쪽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다양각색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사회가 구성되어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반대 쪽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불편함을 아는것을 시작으로 중간에는 공용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